

암 치료 발전을 이끈 임상연구자

아산의학상 ② |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강윤구 교수는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위암과 위장관기질종양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연구로 기존 암 표준 치료법을 개선했다.

2006년 6월, 강윤구 교수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발표 단상에 섰다. 먹는 항암제 카페시타빈의 다국가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위해서였다. 전 세계 3만여 명의 의학자가 참여해 2만여 건의 임상자료를 공유한 그해 학회에서 구두 발표 기회를 얻은 국내 의학자는 그를 포함해 단 두 명뿐이었다. 강윤구 교수의 연구가 주목받은 이유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카페시타빈의 효과와 안전성을 규명하면서 국내 의학자 최초로 글로벌 임상연구의 총괄연구책임자(PI, Principal Investigator)를 맡아 다국가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이전까지 전이성 혹은 재발성 위암에 대한 1차 항암화학요법으로는 주사제인 5-FU와 시스플라틴(Cisplatin)을 병용하는 FP요법이 널리 쓰였다.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하는 5-FU의

특성상 환자들은 일주일마다 새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반면 ‘먹는’ 항암제인 카페시타빈은 환자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는 것이 강윤구 교수의 생각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연구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문제는 시간이었다. 제약사가 비용을 대는 제약사 주도 임상연구 절차를 따를 경우 7~8년 이상이 걸릴 터였다. 강윤구 교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제약사에 제안해 직접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다. 2년여 만에 소규모의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제약사는 바로 허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연구를 추진했다. 강윤구 교수는 2003년부터 총괄연구책임자로서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치료인 FP요법과 비교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해 표준치료를 바꾸는 글로벌 연구를



먹는 항암제 카페시타빈에 대해 설명하는 강윤구 교수.



강윤구 교수가 연구원들과 세미나를 하고 있다.

총지휘했다. 13개국 위암환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끝에 2007년 카페시타빈은 우리나라와 유럽의약품평가국으로부터 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국내 의학자가 여러 국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를 가지고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

임상연구로 치료표준을 바꾸다


종양내과 전문의로서 강윤구 교수는 위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었다. 이전까지 당연한 듯 여겨졌던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임상연구에 매달린 결과다.

이전까지는 위암 발생률이 높고 위암 수술이 발전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위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치료가 불문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강윤구 교수는 진행성 위암의 경우 재발의 주된 원인이 원격전이세포라는데 주목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덜 발전한 서구에서처럼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하는 편이 더 좋았다. 약제를 제공할 제약 회사 설득에만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5년간 임상연구를 진행해 수술 전 항암치료가 완전 절제율을 높이고 수술 후 병기를 낮추어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국소진행성 위암치료의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고도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마다 강윤구 교수는 상황과 문제점을 촘촘히 기록했다. 임상연구를 통해 언젠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치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실패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자 의학자의 책무라고 믿는다.

탁월한 임상연구자, 충실한 임상전문의

학창 시절 강윤구 교수는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었다가 방향을 바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종양내과에는 국내 1호 항암신약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고(故) 김노경 교수가 있었고, 임상연구들이 태동 중이었다. 덕분에 강윤구 교수는 임상연구에 더욱 힘쓰게 됐고, 임상전문의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2022년 9월 정년퇴임한 후의 일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부 지원이 없고 환자 모집이 더더 10년째 진행 중인 임상연구들도 있고, 후배들에게 전수해야 할 노하우도 많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 진료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암 치료 발전은 임상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강윤구 교수이기에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글 최주연 작가